



누군가 연수전 돌담 밑에 쌓아놓은 불상 모양의 돌담.

① 의성 고운사(孤雲寺)

천재의 아쉬운 발자국 위를 걸으면
고개속인 임금의 독백이 들려온다

구름이고 싶은 가운루(駕雲樓)가 차가운 바람 위에 서있다. 신라의 천재 최치원(崔致遠·857~?)은 이곳에서 '신라'를 생각했고, 실의에 빠진 고려의 임금 공민왕은 '고려'를 생각하며 현판을 썼다. 최치원의 발자국들과 공민왕의 독백이 남아있는 절 고운사.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에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최치원이 여지(如智)·여사(如事) 두 스님과 가운루 불사를 했고, 사찰 이름이 高雲寺(고운사)에서 그의 호를 따른 孤雲寺(고운사)가 됐다.

큰법당에서 주지 스님의 법문이 들려왔다.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간 까닭과 양 무제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앞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진정한 공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

도량 위쪽에 선원이 있다. 큰법당 그림자만큼 돌계단을 오르면 귀가 많이 떨어 지나간 삼층석탑과 나한전이 있고, 그 옆이 선원이다. 산기슭에 달아있는 마당 끝에 서면 햇살 쪽으로 목을 빼고 선 소나무들이 만져질 것만 같다. 동안개가 끝나간다. 한 겹 창호지 문살로 봉인된 공안들이 궁궁하다. 며칠 뒤면 그 봉인을 뜯게 된다. 겨울바람이 문살을 두드리고, 나한전 마당의 낙엽들이 살금살금 선원으로 굴러간다. 갈 길을 정하지 못했던 낙엽들이 이제 갈 길을 정한 것 같다. 아래 큰법당의 법회가 끝났다.



선원이 되고 싶었던 최치원이 지은 가운루.

법당의 법회는 끝났지만 마당 한 쪽에선 돌부처님이 야단법석을 열고 계셨다. 누군가 연수전 돌담 밑에 돌부처님을 모셨다. 누군지 모르지만 큰 불사를 하고 갔다. 지나는 이마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불상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 법회의 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부처님이고, 그 앞에 서는 순간이 법회였다.

신라가 나온 천재는 기우는 신라를 어찌지 못했고, 모든 시름을 던져버리고 싶었던 고려의 임금은 그 시름을 어찌지 못했다. 하지만 고단했던 그들에게는 고운사가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꿈을 꿀 수 있었다. 구름을 타고 고단한 운명의 땅을 벗어날 수 있었다. 돌담 밑에 모신 부처님 앞에 서니 그들이 가운루를 찾았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가운루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름이었던 것이다.

고운사에 간다면 가운루에 서볼 일이다. 천재의 아쉬운 발자국 위를 걷고 있으면 고개 속인 임금의 독백이 들려온다. 고운사에 간다면 가운루에 서볼 일이다. 구름에 실려 어디론가 가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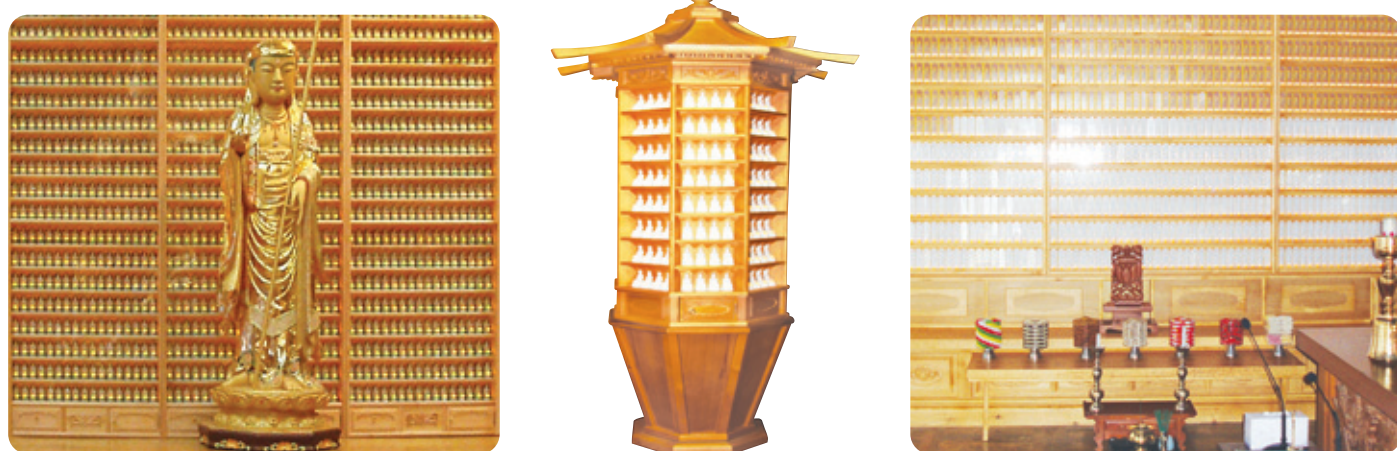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anmail.net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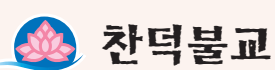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6원/1kwh

-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